

##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박 선 미\*

---

### 《요 약》

---

본 연구는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또래 유능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성차가 있는지, 또한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또래유능성간의 관련성과 성차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P시의 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5세 129명이었다. 그 결과,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또래 유능성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이 있으며 성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변인군간의 관계 파악을 위해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하위요소인 인지적 영역은 또래 유능성 변인군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며, 또래 유능성 변인군 중 친사회성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고, 주도성과 사교성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두 변인군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차는 남아는 사회·정서적 영역의 자기효능감이 친사회성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여아는 인지적 영역의 자기효능감이 주도성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 유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아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하며, 교육현장에서 유아의 성공경험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의 제공과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지도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주제어:** 유아의 자기효능감(children's self-efficacy)  
또래 유능성(peer competence)

---

※ 논문접수 11. 8 / 수정본 접수 11. 26 / 게재승인 12. 23

\* 경기 유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점진적이며 연속적인 적응의 변화과정으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요인이 서로 역동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하게 개별적 특성을 나타내며 적응을 이루어간다(단현국, 2009). 특히 유아기가 되면 심리적 요인 중 지적 발달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구성되어 유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발달 과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장휘숙, 2010; Bandura, 2004).

유아가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며 사회적인 관계에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게 하는 자기효능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Bandura, 1999).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며(Bandura, 1977), 과제수행에 필요한 동기, 인지적 원천,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과 성공에 필요한 신체적, 지적, 정서적 근원을 움직이게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Eden & Aviram, 1993).

자기효능감은 삶의 성공적인 경험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을 다루는 기술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준다(녹우원·녹우량 Clinic, 2006). 또한 개인으로 하여금 문제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인내심 있게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켜 나가게 하며,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형성하게 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한다(장휘숙, 1993, 2001).

유아기는 유아의 자아상이 성립되고 자기효능감 형성의 심리적 기반이 마련되는 시기(허정철, 1991; Selman, 1980)이므로 발달의 초기에 있는 유아의 자기효능감 형성과 발달에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유아의 자아개념, 전반적인 인격형성과 유치원 적응력,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행동을 촉진시키며 또래 수용도를 증가시킨다(녹우원·녹우량 Clinic, 2006; 전인옥, 1996; 정옥분, 2005; Harter, 1982).

자기효능감이 높은 유아는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발달시키며 일상적인 생활 스트레스에도 잘 견디어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며,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게 되어 잘 대처한다(차인수, 2001). 또한 유아는 또래 친구들과의 사회적 비교과정을 통해 광범위하게 자기효능감의 범위를 넓히고 자신의 효능감을 점진적으로 객관화, 타당화해 나간다(Bandura, 1999).

유아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반영해 볼 수 있는 주요한 대상으로서 또래와 맺게 되는 관계는 대인간 상호작용 기술 및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준다(Coie, Dodge, & Kupersmidt, 1990). 유아가 또래 관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또래와 만족스럽게 상호작용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가는 것은 유아기의 주요 발달 과제 중의 하나이다(단현국, 2004). 유아는 또래들과 함께 지내면서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인정하고, 협상하며, 타협하고, 서로 협력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 또래간 상호작용은 인간관계 기술을 비롯한 사회성 발달 및 성격, 정서, 언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능력의 발달에 기여하며 여러 측면에서 또래 유능성의 발달을 촉진한다(Shaffer, 2000/2005).

또래 유능성은 유아가 또래와 잘 어울리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며,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면서 또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적응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능력을 말한다(박주희, 이은혜, 2001). 또래 유능성이 높은 유아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협동적인 놀이에 참여하며 친사회적이고 주도적이며(김희진, 1998; 문혁준, 2000; 윤영신, 1992), 놀이 집단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의사소통을 능숙하게 하며 또래간의 갈등을 잘 해결한다(Asher, Renshaw, Hymel, Moore & Cooper, 1982).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자기효능감을 촉진시킬 수 있다. 또래는 대리 경험을 제공하는 대상으로서 유아의 자기효능감 판단의 중요한 준거가 된다. 유아는 자신과 유사하거나 좀 더 유능한 또래의 성공을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성공을 예견하며, 자신의 능력을 평가한다(Bandura, 1999). 또래와의 관계는 자기효능감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또래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지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친사회적 행동유형을 하는 데 있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친사회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나고(Perry, Perry, & Rasmussen, 1986) 사회적 능력도 높게 나타난다(강수진, 1995). 반면 유아의 낮은 자기효능감은 태도적인 면에서나 행동적인 면에서 또래와의 관계맺기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유지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행동을 나타나게 한다(Connolly, 1986; Wheeler & Ladd, 1982).

자기효능감과 또래 유능성에 나타난 성차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보면, 자기효능감은 전반적으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우희정, 1993; Maccoby & Jacklin, 1974), 신체적 영역의 자기효능감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으며(공인숙, 1989; 김치영, 1987; 이주리, 1991), 인지적 영역의 자기효능감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다(김혜경, 2006). 또래 유능성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권연희, 2002;

도현심, 1994; 박주희, 2001; 정영선, 2004; 허애수, 2003; Cohn, 1991; LaFreniere et al., 2002),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도 있다(한성희, 1985; Liberman, 1977).

이와 같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또래 유능성과 관련이 있음을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성공 경험을 나누며 유능성을 발휘하고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모색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또래 유능성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자기효능감의 주요 요소인 인지적, 신체적, 사회·정서적 영역에서 살펴보고 또래 유능성의 어떤 요소와 관련이 있으며, 남아와 여아 간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밝혀 보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어떻게 나타나며, 성차가 있는가?
2. 유아의 또래 유능성은 어떻게 나타나며, 성차가 있는가?
3.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또래 유능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성차가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경기도 P시에 소재하고 있는 34개 공립유치원 중 유치원 교사 경력이 3년 이상이며, 유아의 자기효능감 검사와 또래 유능성 평정에 동의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8개 공립유치원의 9개 학급에 재원 중인 만 5세 학급 유아 129명(남아: 61명, 여아: 68명)이었다.

연구 대상 유아의 평균 연령은 유아의 자기효능감 검사와 또래 유능성 평정일을 기준으로 6년 1개월(남아: 5년 9개월, 여아: 6년 5개월)이었다.

### 2. 연구 도구

#### 1) 유아의 자기효능감 검사

유아의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인옥(1996)의 유아의 자기효능감 검사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자기효능감 검사는 인지적 자기효능감, 신체적 자기효능감, 사회·정서적 자기효능감의 3개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는 유아의 반응 정도를 나타내는 크기가 다른 다섯 개의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그림카드와 유아의 반응을 기록할 기록용지로 되어 있다. 검사문항은 예비 검사 문항 1문항과 본 검사 문항 25문항이다. 하위 요소별 문항은 인지적 영역 9문항, 신체적 영역 7문항, 사회·정서적 영역 9문항이다.

## 2) 또래 유능성 척도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박주희와 이은혜(2001)가 제작한 취학 전 유아용 또래 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래 유능성 척도는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의 3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 요소별 문항은 5문항씩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단계 평정 척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는 5에, 「조금 그렇다」는 4에, 「보통이다」는 3에, 「별로 그렇지 않다」는 2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에 표시하게 되어 있다.

## 3) 연구 절차

연구는 검사자 교육, 평정자 교육, 또래 유능성 척도 평정, 유아의 자기효능감 검사 실시 순으로 진행하였다.

### (1) 검사자 교육

연구자는 유아의 자기효능감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 연구자를 선정하고 검사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검사자 교육을 실시한 후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자가 먼저 만 5세 유아 3명(남아: 2명, 여아: 1명)을 대상으로 유아의 자기효능감 검사를 실시하고, 일주일 후 검사자 교육을 받은 보조 연구자가 동일한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자기효능감 검사를 재실시하여 검사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유아의 자기효능감 검사의 검사자간 신뢰도 계수는 .98이었다.

### (2) 평정자 교육

연구자는 9개 연구 대상 유치원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평정을 맡은 각 학급의 담임

교사에게 개별 혹은 소그룹으로 평정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목적과 또래 유능성 척도 평정 방법 및 평정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의 각 문항을 함께 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유아 1명을 대상으로 평정을 실시하게 한 후 평정 문항을 함께 재검토하면서 의문점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그 의문점에 대해서 연구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재설명하였다. 평정자 교육에서 평정 대상이었던 각 학급별 유아 1명은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3) 또래 유능성 척도 평정

또래 유능성 척도는 평정자 교육을 받은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유아를 관찰한 것을 기초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 (4) 유아의 자기효능감 검사 실시

유아의 자기효능감 검사는 검사자인 보조 연구자가 검사대상 유아의 유치원 교무실에서 유아와 일대일 개별 면접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 3. 자료 처리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또래 유능성이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유아의 자기효능감 검사 점수와 또래 유능성 척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성차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또래 유능성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 계수를 산출하고, 두 변인군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Ⅲ. 결 과

### 1. 유아의 자기효능감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어떻게 나타나며, 성차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표 1과 같다.

<표 1>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평균과 표준편차(N=129)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소	남아(n=61)		여아(n=68)		전체(N=129)		t
	M	SD	M	SD	M	SD	
인지적 영역	3.79	.66	3.83	.53	3.81	.50	-.41
신체적 영역	3.89	.82	3.75	.67	3.82	.75	1.15
사회·정서적 영역	3.82	.82	4.07	.73	3.95	.78	-1.80
계	3.83	.68	3.90	.52	3.87	.60	-.57

(N. S.)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의 자기효능감 문항별 평균은 3.87( $SD=.60$ )이었다.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점수 범위 1 - 5점에서 「중간 보통」 3점과 「약간 많이」 4점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소별로 살펴보면, 사회·정서적 영역의 자기효능감은 3.95( $SD=.78$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체적 영역 3.82( $SD=.75$ ), 인지적 영역 3.81( $SD=.50$ )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의 문항별 평균은 남아 3.83( $SD=.68$ ), 여아 3.90( $SD=.52$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위 요소별로 살펴보면, 인지적 영역은 남아 3.79( $SD=.66$ ), 여아 3.83( $SD=.53$ ), 신체적 영역은 남아 3.89( $SD=.82$ ), 여아 3.75( $SD=.67$ ), 사회·정서적 영역은 남아 3.82( $SD=.82$ ), 여아 4.07( $SD=.73$ )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수준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 2. 유아의 또래 유능성

유아의 또래 유능성이 어떻게 나타나며, 성차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다.

<표 2>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평균과 표준편차(N=129)

또래 유능성의 하위 요소	남아(n=61)		여아(n=68)		전체(N=129)		t
	M	SD	M	SD	M	SD	
사 교 성	3.41	1.01	3.52	.89	3.47	.94	-.68
친사회성	3.53	.94	3.71	.80	3.62	.87	-1.18
주 도 성	3.43	.91	3.51	.86	3.47	.88	-.47
계	3.45	.90	3.58	.80	3.52	.85	-.81

(N. S.)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 문항별 평균은 3.52( $SD=.85$ )이었다. 유아의 또래 유능성은 점수 범위 1 - 5에서 「보통이다」 3점과 「자주 그렇다」 4점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소별로 살펴보면, 친사회성이 3.62( $SD=.87$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교성 3.47( $SD=.94$ ), 주도성 3.47( $SD=.88$ )로 나타났다.

또래 유능성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살펴보면, 또래 유능성 문항별 평균은 남아 3.45( $SD=.90$ ), 여아 3.58( $SD=.80$ )로 남아가 여아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하위 요소별로 살펴보면, 친사회성은 남아 3.53( $SD=.94$ ), 여아 3.71( $SD=.80$ ), 주도성은 남아 3.43( $SD=.91$ ), 여아 3.51( $SD=.86$ ), 사교성은 남아 3.41( $SD=1.01$ ), 여아 3.52( $SD=.89$ )로 남아가 여아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모든 하위요소에서 유의한 수준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 3.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는 어떠하며, 성차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다.

<표 3>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또래 유능성과의 상관관계 ( $N=129$ )

유아의 자기 효능감의 하위 요소 또래 유능성의 하위 요소	인지적 영역	신체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총점
사 교 성	.65**	.61**	.58**	.71**
친사회성	.67**	.58**	.64**	.74**
주 도 성	.61**	.59**	.53**	.67**
총 점	.68**	.63**	.62**	.75**

\*\* $p < .01$ .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75$ ,  $p < .01$ .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소인 자기효능감 변인군과 또래 유능성의 하위 요소인 또래 유능성 변인군 간의 상호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유아의 자기효능감을 예측 변인군으로 하고, 또래 유능성을 준거 변인군으로 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실



시한 결과 표 4와 같다.

<표 4> 유아의 자기효능감 변인군과 또래 유능성 변인군의 정준상관분석

	정 준 상 관 함 수		
	제 1 정준상관함수	제 2 정준상관함수	제 3 정준상관함수
정준상관계수	.76	.22	.02
고유값 (Eigen Value)	1.38	.04	.00
설명력	.42	.01	.00
$\chi^2$	114.00***	6.12	.04
df	9	4	1

\*\*\* $p < .001$ .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 개의 정준상관함수 중 한 개의 정준상관함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제 1 정준상관함수:  $R^2 = .76$ ,  $\chi^2 = 114.00$ ,  $p < .001$ ), 유아의 자기효능감 변인군과 또래 유능성 변인군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1 정준상관함수는 유아의 자기효능감 변인군과 또래 유능성 변인군 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42%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두 변인군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가장 설명력이 큰 제 1 정준상관함수를 중심으로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측 변인군인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어떤 하위 변인이 준거 변인군인 또래 유능성의 어떤 하위 변인을 예측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준상관분석을 통해 정준가중치를 살펴보았다.

제 1 정준상관함수에 대한 정준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5과 같다.

&lt;표 5&gt; 제 1 정준상관함수에 대한 정준상관분석

변인군	성별	제 1 정준상관함수			
		$W$	$L$	$L^2$	$\% \Sigma L^2$
자기효능감	인지적 영역	.25	.88	.77	.33
	여	.59	.92	.85	.42
	계	.48	.91	.83	.38
신체적 영역	남	.21	.79	.62	.28
	여	.36	.85	.72	.37
	계	.24	.81	.66	.30
사회·정서적 영역	남	.64	.95	.90	.39
	여	.23	.63	.40	.21
	계	.44	.84	.70	.32
또래유능성	사교성	.09	.94	.88	.34
	여	.01	.92	.85	.33
	계	.08	.94	.88	.33
친사회성	남	.83	1.00	1	.39
	여	.46	.91	.83	.32
	계	.70	.98	.96	.37
주도성	남	.11	.84	.71	.27
	여	.61	.95	.90	.35
	계	.28	.88	.77	.30

$W$ (canonical weight) : 정준가중치

$L$ (canonical loading) : 정준부하량

$L^2$  : 정준부하량의 자승값

$\% \Sigma L^2$  : 정준부하제곱백분율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 1 정준상관함수의 정준가중치를 살펴보면, 유아의 자기효능감 변인군 중 가중치( $W$ )가 가장 높은 변인은 인지적 영역의 자기효능감(.48)이었으며, 사회·정서적 영역(.44), 신체적 영역(.24) 순이었다. 또래 유능성 하위 변인군 중 가중치가 가장 높은 변인은 친사회성(.70)이었으며, 주도성(.28), 사교성(.08) 순이었다.

제 1 정준상관함수의 정준부하제곱백분율을 살펴보면, 예측 변인군인 유아의 자기효능감 중 인지적 영역의 자기효능감이 군내 변량의 38%를 차지하였으며, 사회·정서적 영역은 32%, 신체적 영역은 30%를 차지하였다. 준거 변인군인 또래 유능성 변인군 중에서

는 친사회성이 군내 변량의 37%를 차지하였으며, 사교성은 33%, 주도성은 30%를 차지하였다.

제 1 정준상관함수에 따라 성차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자기효능감 변인군 중 가중치( $W$ )가 가장 높은 변인은 사회·정서적 영역의 자기효능감( .64)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인지적 영역( .25), 신체적 영역( .21) 순이었다. 정준부하제곱분율( $\% \Sigma L^2$ )을 살펴보면, 예측 변인군인 남아의 자기효능감 변인군 중 사회·정서적 영역의 자기효능감이 군내 변량의 39%를 차지하였으며, 인지적 영역은 33%, 신체적 영역은 28%를 차지하였다.

또래 유능성 하위 변인 중 가중치가 가장 높은 변인은 친사회성( .83)이었으며, 그 다음은 주도성( .11), 사교성( .09)순이었다. 정준부하제곱분율( $\% \Sigma L^2$ )을 살펴보면, 준거 변인군인 또래 유능성 변인군 중 친사회성이 군내 변량의 39%를 차지하였으며, 사교성은 34%, 주도성은 27%를 차지하였다.

여아의 경우 자기효능감 변인군 중 가중치( $W$ )가 가장 높은 변인은 인지적 영역의 자기효능감( .59)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신체적 영역( .36), 사회·정서적 영역( .23) 순이었다. 정준부하제곱분율을 살펴보면, 예측 변인군인 여아의 자기효능감 변인군 중 인지적 영역의 자기효능감이 군내 변량의 42%를 차지하였으며, 신체적 영역은 37%, 사회·정서적 영역은 21%를 차지하였다.

또래 유능성 하위 변인 중 가중치가 가장 높은 변인은 주도성( .61)이었으며, 그 다음은 친사회성( .46), 사교성( .01) 순이었다. 정준부하제곱분율을 살펴보면, 준거 변인군인 또래 유능성 변인군 중 주도성이 군내 변량의 35%를 차지하였으며, 사교성은 33%, 친사회성은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는 그 양상에서 남아와 여아 간에 성차를 보이고 있었다.

남아는 자기효능감 변인군 중 사회·정서적 영역의 자기효능감이 또래 유능성의 변인군 중 친사회성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다르게 여아는 자기효능감 변인군 중 인지적 영역의 자기효능감이 또래 유능성 변인군 중 주도성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본 연구에서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또래 유능성이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또래 유능성이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와 성차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면,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문항별 평균은 3.87이었다. 이는 문항의 내용에 따라 「중간 보통」 3점과 「약간 많이」 4점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인 만 5세 학급의 유아가 보여주는 행동이나 활동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효능감이 보통 이상 수준의 발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가 4~5세 정도가 되면 자신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자기개념이 정립되고 자기 묘사를 할 수 있게 되며,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평가할 수 있게 되고(Bandura, 1999; Shaffer, 1999/2000) 점차 자기효능감 정보의 분별력이 명확해지고 있음(공인숙, 1989; 홍계옥, 2003; Bandura, 1982; Wheeler & Ladd, 1982)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유아의 활동범위가 넓어지면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얻은 경험이 자기효능감의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견해(Bandura, 1999; Shaffer, 1999/2000)에 비추어볼 때, 만 5세 유아들의 발달적 성숙과 함께 유치원에서 교사와 또래 등 타인과의 상호작용 경험이 반복되면서 자기효능감이 발달의 과정 중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만 5세 정도가 되면 자신의 성공 경험과 대리 경험, 타인으로부터의 언어적 설득을 통해 노력을 함으로써 능력의 부족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견해(Bandura, 1977; Kun, 1977)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소별 문항 평균을 살펴보면, 사회·정서적 영역의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체적 영역, 인지적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소 중 사회·정서적 측면에서 자기능력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교사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은 사회적 성공 경험이 인지적 과정을 통해 자기효능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Bandura, 1999), 유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선택과 결과를 의식하고 사회 정서적 자기효능감을 판단할 수 있는 발달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유아가 성공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사

회적 관계형성과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에 있어 자신의 능력을 믿게 되어(Bandura, 1999), 교사나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때 사회·정서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전인옥, 1996)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에서의 성차는 여아가 남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만 5세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유아기 동안에는 남녀 아동의 전반적인 자기확신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유아기에는 자기효능감에 있어 성차가 나지 않았던 연구들(김혜경, 2006; 우희정, 1993; Maccoby & Jacklin, 1974; Wheeler & Ladd, 1982)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경향은 신체적 영역의 자기효능감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으며, 인지적 영역과 사회·정서적 영역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았다는 연구(우희정, 1993)와 일치한다.

이것은 유아기에는 신체적 영역의 자기효능감에서 성별에 따라 큰 차이는 없으나 생물학적으로 남아는 여아보다 근육이 많고 신체적인 힘에서 여아를 능가하며 신체적으로 활동적이고(DiPietro, Hodgson, Costigan, Hilton, & Johnson, 1996; Tanner, 1990), 신체적이며 활동적인 경험을 많이 할수록 높은 자기 가치감과 유능감을 느낀다(Shaffer, 1999/2000)는 발달적 특성이 있어 남아가 자신의 신체적인 수행 능력을 신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아는 남아보다 언어적 능력이 뛰어나(Halpern, 1997; Hedges & Nowell, 1995) 언어를 매개로 하여 사회적인 관계에서 효과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정서를 이해할 때 남아보다 감정 이입적이라고 자신을 평가하는 특성(Cohen & Strayer, 1996; Feingold, 1994)이 있어 자신이 인지적, 사회·정서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 유아의 또래 유능성은 문항별 평균이 3.52이었다. 이는 문항의 내용에 따라 「보통이다」 3점과 「자주 그렇다」 4점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인 만 5세 정도 유아들이 학급 내에서 또래와의 관계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고 또래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며, 또래 관계 내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보통 수준 이상으로 발달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 대상인 만 5세 유아가 유치원에서 또래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상호작용의 경험을 많이 함으로써(정옥분, 2005)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사교성과 친사회성, 주도성이 발달하며(박주희, 2001), 자신이 또래 관계를 맺음에 있어 유능하다고 지각하게 되는 발달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경향성은 또래 유능성과 정서지능, 자기 조절력, 자아지각, 정서 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정서표현성, 유치원 적응, 협력활동 경험, 기질에 관한 선행연구(강은선, 2010; 김미영, 2011; 김영희, 2006; 박순진, 2011; 양인아, 2009; 우수정, 2001; 위영희, 2004; 임혜진, 2006)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래 유능성의 하위 요소별 문항 평균을 살펴보면, 친사회성이 사교성과 주도성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에서 도와주거나 나누고, 협동하는 등의 친사회적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것에 비해 여러 유아들과 고루 어울리거나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행동은 적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는 또래 유능성이 높은 유아는 다른 유아를 잘 도와주고 사이좋게 지내며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발달하여 친사회성이 사교성과 주도성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강은선, 2010; 김영희, 2006; 양인아, 2009; 이재은, 2006)와 유사한 발달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래 유능성의 하위 요소 중 친사회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4~6세경부터 친사회적 행동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Bar-Tal, Raviv, & Goldberg, 1982; Green & Schneider, 1974), 유아가 4~5세 정도가 되면 협조의 가치와 필요성 및 방법을 이해하는 인지적 능력이 발달하면서 친사회성이 높아지는(Knight, Berning, Willson, & Chao, 1987) 발달적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살펴보면, 남아는 또래 유능성의 하위 요소인 친사회성, 주도성, 사교성에서 여아보다 평균이 낮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남아와 여아의 또래 유능성이 차이가 없으며(박순진, 2011; 한성희, 1985; Liberman, 1977),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점수가 여아가 남아보다 다소 높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연구(이혜영, 1986)와 일치한다. 반면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고 사회적 능력이 높다고 한 연구(권연희, 2002; 김미영, 2011; 김정아, 1990; 도현심, 1994; 박수향, 2005; 박주희, 2001; 성수경, 2009; 이병립, 1987; 정영선, 2004; 정영숙, 1992; 최정미, 2002; 허애수, 2003; Cohn, 1991; LaFreniere et al, 2002)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셋째,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또래 유능성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또래 유능성의 관계를 각 하위 요소별로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인 인지적 영역, 신체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이 모두 또래 유능성의 하위요소인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가 자신의 능력, 즉 인지적인 영역과 신체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에서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높을수록 여러 유아와 잘 어울리고 또래로부터 잘 수용되며, 친구들에게 민감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고,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기초로 형성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해가며 또래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기꺼이 헤쳐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하여(Bandura, 1995/2004) 또래와의 관계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사회적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자기효능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행동에 대한 노력을 더 하게 되므로(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이 높은 유아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인기도나 지도력이 높고 친사회적 행동을 하며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결과(강수진, 1995; 김혜경, 2006; 정안나, 2008; Perry, Perry & Rasmussen, 1986)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유아의 자기효능감 변인군과 또래 유능성 변인군과의 상호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유아의 자기효능감을 예측 변인군으로 하고, 또래 유능성을 준거 변인군으로 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아의 자기효능감 변인군과 또래 유능성 변인군 간의 관계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자기효능감 변인군 중 인지적 자기효능감, 신체적 자기효능감, 사회·정서적 자기효능감 모두가 또래 유능성 변인군을 예측해 줄 수 있으며, 특히 유아의 자기효능감 변인군의 인지적 자기효능감은 또래 유능성 변인군 중 친사회성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고, 주도성과 사교성도 예측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지적인 과제 수행의 경험과 그 결과를 더 오래 기억하거나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유아가 또래 유능성이 높으며, 특히 다른 유아를 잘 도와주고 사이 좋게 지내며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래 집단에 잘 수용되어 여러 유아들과 고루 어울리며 활동이나 놀이를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이끌어 가며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사회적 문제해결력과 과제수행능력이 증진되면서 이와 관련된 활동에서의 자신의 성공 경험과 모델관찰을 기초로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고 효능감을 인식하며(Bandura, 1999), 인지 발달과 함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는 조망수용능력이 발달하여(송명자, 1995; Shaffer, 1999/2000) 타인의 감정과 상황에 대한 공감을 기초로 친절하게 행동하고 또래에게 수용되어질 수 있는 행동을 보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인지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유아가 친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또래에게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거부를 덜 당하며(차인수, 2001), 인지적 자기효능감이 유아

의 사회적 관심과 참여, 사회적 협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김혜경, 2006)와 유사하다.

이는 인기 있는 아동이 인지적 능력이 높았으며 지능이 높은 아동이 인기 있는 아동이 되기 쉽고 학문적 자아개념이 높은 아동이 인기가 있으며(Harter, 1983), 인기 있는 유아는 또래 관계에서 사교적이며 친절하고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선도하며 협동적인 행동특성을 보인다는 견해(Coie, Dodge, & Kupersmidt, 1990; Denham, McKinley, Couchoud, & Holt, 1990; Ladd, Price, & Hart, 1988)에 비추어볼 때, 인지적 능력과 관련된 성공 경험을 토대로 유아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어 사교적이며 친절한 행동을 더 많이 보이게 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자기효능감 측면에서 자기효능감이 유능성의 생성체계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Bandura, 1999) 이를 바탕으로 또래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쉽게 친구를 사귀고 또래와 협동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장휘숙, 2001) 유아의 인지적, 신체적, 사회·정서적 자기효능감이 유아의 친사회성, 사교성, 주도성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유아의 자기효능감 변인군과 또래 유능성 변인군의 상호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경향을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유아의 자기효능감 변인군 중 사회·정서적 자기효능감이 또래 유능성 변인군 중 친사회적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었고, 여아의 경우 인지적 자기효능감이 주도성을 예측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보여주는 행동 특성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잘 돕고 정서적으로 공감을 잘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인기가 있다고 믿는 남아는 다른 유아를 잘 도와주거나 또래와 사이좋게 지내며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잘 해결하고, 자신이 인지적 과제를 잘 기억하거나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여아는 또래 집단에서 활동이나 놀이를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자신의 의견에 대해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행동이 자주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남아는 자기효능감의 사회·정서적 영역의 문항 중 ‘나는 누구하고나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와 같이 또래 관계 내에서 자신이 다른 유아에게 수용되어질 만큼 인기가 있다고 믿는 자신의 신념을 토대로 친사회적인 행동이 강화되는 성향이 있고(최일선, 1994; 허정순, 2007), 여아는 남아보다 언어발달이 빠르고 언어적 표현력이 높으며 스스로를 잘 표현한다고 믿기 때문에(Shaffer, 1999/2000) 자기효능감의 인지적 영역의 문항 중 ‘나는 선생님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여 어떤 것을 더 빨리 배울 수 있다’와 같이 언어 뿐 아니라 주의를 집중하여 잘 듣고 인지적 능력을 나타내는 과제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또래 집단에서 또래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며 활동을 제안하는 등의 주도성에서 더 높은 수준의 행동을 보여주는 성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유아들이 또래와 놀이를 하는 과정에 제안하고 서로의 의견을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확장시키며,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가는데, 이러한 모든 일은 상당한 수준의 인지적, 사회적 기술을 바탕으로 발달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또래 유능성과 상관이 있으므로, 또래 유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유아가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자기효능감이 높은 유아는 먼저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바르게 대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상황의 해결을 위해 전략을 세우는 행동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동 특성은 유아로 하여금 또래와의 관계에서 상대방과 긍정적인 교류를 나누고 유지할 수 있는 유능성을 증진시켜가는 유아 개인의 인지적 기술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유아가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제공해주고, 실패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유아가 자신의 신념을 증강시켜, 자기효능감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입장에서 개별적인 지도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받을 수 있다.

## 2. 결론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5세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보통 수준 이상의 발달을 보이고 있으며,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 중에서는 사회·정서적 영역의 자기효능감이 신체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의 자기효능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발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유아의 자기효능감에서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만 5세 유아의 또래 유능성은 보통 수준 이상의 발달을 보이고 있으며, 또래 유능성의 하위요소 중에서는 친사회성이 사교성과 주도성보다 더 높은 발달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서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다. 유아의 자기효능감 변인군 중 인지적 영역의 자기효능감은 또래 유능성 변인군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며, 또래 유능성 변인군 중 친사회성을 가장 잘 예측해 주고, 주도성과 사교성도 예측해 줄 수 있는 변인이 되고 있다.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에서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자기효능감 변인군 중 사회·정서적 영역의 자기효능감이 또래 유능성 변인군

중 친사회성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며, 여아는 남아와는 달리 자기효능감 변인군 중 인지적 영역의 자기효능감이 또래 유능성 변인군 중 주도성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 되고 있다.

### 3. 제언

이상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만 5세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자기효능감은 유아기에 이어 아동기에도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계속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표집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연령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또래 유능성이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의 자기효능감을 통한 또래 유능성을 실제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해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강수진(1995). **아동의 자아효능감과 사회적 능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은선(2010).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연희(2002).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영(2011).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과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2006). **유아의 정서지능과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아(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치영(1987).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 지각과 학업성취**.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2006).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진(1998). 어머니의 인지, 어머니의 지도 감독 행동, 그리고 유아의 또래간 유능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1), 43-53.
- 녹우원·녹우랑 Clinic (편.)(2006). 자기존중감의 Road Map. **자기계발 프로그램 심화과정/프로그램 워크샵 자료**. 충북 청원: 녹우원·녹우랑 Clinic.
- 단현국(2004). 유아의 유치원 적응의 함수풀이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교과교육공동연구소 (편.), **교과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활용방안 모색** (pp. 3-13). 충북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출판부.
- 단현국(2009). **즐기는 아이·부모·교사의 365 경영**. 충북 청원: 녹우원·녹우랑 Clinic.
- 도현심(1994). 아동의 수줍음, 대인 적응성 및 또래수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33-45.
- 문혁준(2000). 또래 수용도와 부모 양육태도: 인기아와 고립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7), 39-52.
- 박수향(2005). **부모 역할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순진(2011). **유치원에서의 협력활동 경험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희(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 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주희, 이은혜(2001). 취학 전 아동용 또래 유능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1), 221-232.
- 성수경(2009). **5세 유아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선호성과 또래 유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양인아(2009). **5세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자기 조절력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수정(2001). **유치원 아동의 자아지각과 또래 유능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희정(1993).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모형 탐색**.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 박사학위논문.
- 위영희(2004). 유아의 정서 능력과 또래 유능성. *교육발전*, 23(1), 1-11.
- 윤영신(1992). **아동의 대인문제해결력과 사회성 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림(1987).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지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은(2006).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리(1991). **유아 및 아동의 가정환경 및 또래환경과 역량 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영(1986).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관한 일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혜진(2006).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1993). 자기효율성의 특성에 관한 관련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16-22.
- 장휘숙(2001). **아동발달**. 서울: 박영사.
- 장휘숙(2010). **전 생애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 전인옥(1996). 교사의 교육신념과 자아효능감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22, 483-528.
- 정안나(2008). **유아의 사회적 능력, 자기효능감, 정서지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선(2004). **유아의 기질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숙(1992).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옥분(2005). **영유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차인수(2001). **자기효능감과 사회성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분석**.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일선(1994).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어머니의 인식 및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미(2002).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2(3), 205-216.
- 한성희(1985).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인기도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1(1), 72-86.

- 허경철(1991). Bandura의 자아효능감 발달 이론과 자주성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한국교육**, 18, 67-88.
- 허애수(2003).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 유능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정순(2007). **유아의 인기도에 따른 또래유능성 및 사회적 언어 사용**.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계옥(2003). 유아의 성·연령·기질, 어머니 기질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과 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3(4), 5-22.
- Asher, S., Renshaw, R., & Hymel, S. (1982). Peer re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skills. In S. G. Moore & C. R. Cooper (Eds.), *The young child reviews of research* (Vol. 3, pp. 137-158). NY: NAEYC.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s: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1999).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김의철, 박영신, 양계민 공역). 서울: 교육과학사. (원저 1997 출판)
- Bandura, A. (2004).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자기효능감**(윤운성, 정정옥, 가경신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저 1995 출판)
- Bar-Tal, D., Raviv, A., & Goldberg, M. (1982). Helping behavior among preschool children: An observational study. *Child Development*, 53, 393-402.
- Cohen, D., & Strayer, J. (1996). Empathy in conduct-disordered and comparison youth. *Developmental Psychology*, 32(6), 988-998.
- Cohn, D. A. (1991).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year-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1), 152-162.
- Coie, J. D., Dodge, K. A., & Kupersmidt, J. B. (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17-5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nnolly, J. (1986). Social self-efficacy in adolescence: Relations with self-concept, social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1(3), 258-269.

- Denham, S. A., & McKinley, M., Couchoud, E. A., & Holt, R. (1990). Emotional and behavioral predictors of preschool peer ratings. *Child Development, 61*(4), 1145-1152.
- DiPietro, J. A., Hodgson, D. M., Costigan, K. A., Hilton, S. C., & Johnson, T. R. B. (1996). Fetal neurobehavior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7*(5), 2553-2567.
- Eden, D., & Aviram, A. (1993). Self-efficacy training to speed reemployment: Helping people to help themselv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3), 352-360.
- Feingold, A. (1994). Gender differences in personality: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429-456.
- Green, F. P., & Schneider, F. W. (1974). Age differences in the behavior of boys on three measures of altruism. *Child Development, 45*(1), 248-251.
- Halpern, D. F. (1997). Sex differences in intelligence: Implication for education. *American Psychologist, 52*(10), 1091-1102.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1), 87-97.
-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P. H. Mussen (Series Ed.) & E. M. Hetherington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Wiley.
- Hedges, L. V., & Nowell, A. (1995). Sex differences in mental test score, variability, and numbers of high-scoring individuals. *Science, 269*(5220), 41-45.
- Knight, G. P., Berning, A. L., Wilson, S. L., & Chao, C. (1987). The effects of information-processing demands and social-situational factors on the social decision making of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43*(2), 244-259.
- Kun, A. (1977). Development of the magnitude-covariation and compensation schemata in ability and effort attributions of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48*(3), 862-873.
- Ladd, G. W., Price, J. M., & Hart, C. H. (1988). Predicting preschoolers' peer status from their playgrou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59*(4), 986-992.
- LaFreniere, P. J., Masatak, N., Butovskaya, M., Chen, Q., Dessen, M. A., Atwanger, K., Schreiner, S., Montiroso, R., & Frigerio, A. (2002). Cross-cultural analysis of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ers. *Early education*

- and Development*, 13(2), 201-219.
- Lieberman, A. F. (1977). Preschooler's competence with a peer. Relation with attachment and peer experience. *Child Development*, 48(4), 1277-1287.
- Maccoby, E. E., & Jacklin, C. 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Perry, D. G., Perry, L. C., & Rasmussen, P. (1986). Cognitive social learning mediators of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57(2), 700-711.
- Selman, R. L. (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Orlando, FL: Academic Press.
- Shaffer, D. R. (2000). **발달심리학** (김수정, 송길연, 양돈규, 이지연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1999 출판)
- Shaffer, D. R. (2005). **발달심리학** (송길연, 장유경, 이지연, 정윤경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2002 출판)
- Tanner, J. M. (1990). *Foetus into man: Physical growth from conception to maturity* (2nd E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heeler, V. A., & Ladd, G. W. (1982). Assessment of children's self-efficacy for social interactions. *Development Psychology*, 18, 798-805.

##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elf-efficacy and Peer Competence

Park, Seon Mi

This study was to find out how children's self-efficacy and peer competence appear by their gender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elf-efficacy and with peer competence as predictor variable, self-efficacy as criterion variable. The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129 5-year-old children public kindergartens in P-city, Gyeonggi-do.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self-efficacy and peer competence, is not appear gender differences. To determine more comprehensively the relations between the sub-variables of children's self-efficacy and the sub-variables of peer competence, the study carried out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the most predictable on the peer competence sub-variables can be made by using the cognitive self-efficacy which is the best measure for social ability of the peer competence sub-variables. The sub-variable also enables us to predict sense of self-efficacy and peer competence. The gender differences in relations between both sub-variables, boy's the most predictable sub-variable social spontaneity can be made by using socio-emotional self-efficacy. And girl's the most predictable sub-variable leadership can be made by using cognitive self-efficacy. This results showed to improve children's self-efficacy is need to improve peer competence and for improve children's self-efficacy need variable program for children's enactive mastery experience, teaching program.